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공무원시험 가산점, 실시간 조회 가능해진다

- 응시표에 필기시험장 직접 안내, 시험장 잘못 찾아오는 수험생 줄어들 것 -
- 24시간 원서접수,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신청제 등 시험환경 개선 지속 추진

1. 공무원시험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과 취업지원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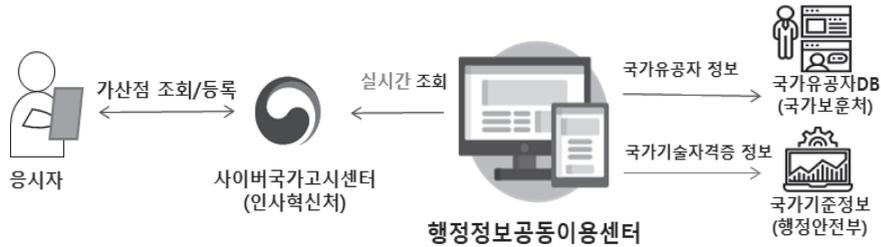
- (1)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중)는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8월 17일(토) 치러지는 7급 공채시험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 (2) 이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시험 수험생은 본인이 보유한 각종 자격증과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가산점의 유효 여부와 가산 비율*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가산점: 3~10%, 자격증 가산점: 3~5%
- (3)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가산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잘못된 가산점을 등록하는 오류를 줄이고 본인 점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기존에는 응시자가 가산점 관련 정보를 확인 없이 등록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 (1) 인사혁신처가 관련 기관에 검증 후 본인에게 확인까지 거쳐 가산점이 확정됨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렸고,
- (2) 수험생은 본인의 가산점과 유효 여부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필기시험 성적 공개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함도 있었다.

3.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효한 가산점을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실시간 조회 시스템 】



* 기술자격증 정보는 행안부의 국가기준정보를 통해 정보를 취합·관리하여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취업지원 가산점 정보는 국가유공자DB를 통해 조회

4. 한편, 이번 7급 공채시험부터는 응시표에 필기 시험장을 직접 안내(기재)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종전에는 본인의 응시번호에 배정된 시험장소를 일일이 찾아봐야 해서 번거로웠고 착오로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수험생도 있었다.

5. 올해 상반기에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원서접수,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신청제* 등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기존에는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이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했으나 연중 3회(각 1개월씩)로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해당 기간에 인정받은 편의지원 내용은 별도의 증빙 없이 2년 간 유효하도록 개선